# 경희궁 일대, 서울광장의 10배 규모 역사문화공원 만든다

**2026년 경희궁지 역사공원 조성**
**국립기상박물관 등 공공부지 4곳**
**11년 동안 4개테마 공간개선 추진**

**보행 네트워크 등 구축, 접근성 강화**
**1915년 철거 돈의문·한양도성 복원**

경희궁지 일대 종합 공간구상안.

돈의문 복원 예시. /서울시

오는 2026년 조선 후기 대표궁궐인 경희궁지에 역사정원이 들어선다. 장기적으로 서울시는 2035년까지 경희궁 일대에 서울광장 10배 규모의 도심 속 역사문화공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서울시는 경희궁지와 주변 4곳의 공공부지(국립기상박물관, 서울시민대학·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돈의문박물관마을) 약 13만6000㎡ 일대를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시킨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접근성이 낮고 별다른 콘텐츠가 없어 시민들로부터 외면을 받는 경희궁지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공간구상안을 마련해 해당 지역을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시는 2035년까지 ▲경희궁지 역사정원 조성과 주변 녹지네트워크 연계 ▲돈의문과 한양도성 복원 ▲교육청 부지 기능 전환과 역사박물관 이전 방안 모색 ▲돈의문박물관마을을 녹지화 및 공간 재구성 총 4개 테마로 공간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시는 경희궁지 내에 역사정원을 만들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차량 진입로와 같이 역사적 맥락과 무관한 시설은 덜어내고, 궁궐숲 조성과 왕의 정원 연출을 통해 경희궁의 품격을 높일 것"이라며 "비워져 있는 공간 특성을 활용해 복잡한 도심 속에서 여가와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전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는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을 연내 정비하고,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경희궁 전체의 모습을 바꿔나간다는 복안이다.

경희궁으로의 접근성도 강화한다. 새문안로변에는 가로 정원을 설치하고, 경계부 담장을 정비해 보행로를 조성하는 등 녹지·보행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기상박물관 일대에는 기후환경숲을 만들어 교육·체험의 장으로도 활용할 것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또 시는 경희궁의 특징을 알 수 있는 'ㄴ'자형 어도(왕의 길)를 상당 부분 점유한 서울역사박물관 이전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어도 복원을 위해서는 역사박물관 이전이 불가피하다.

시 관계자는 "서울역사박물관은 서울의 역사와 전통문화를 함께 보여줄 수 있는 소중한 문화 자산으로 1988년 경희궁지 내 건립을 어렵게 승인받아 2002년 개관했다"면서 "시대별 중첩된 역사를 보여줄 수 있다는 의견과 경희궁지가 아닌 곳에 제대로 건립돼야 한다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이전 적정 부지를 신중하게 검토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시는 1915년 일제가 전차 궤도를 복선화하면서 철거한 돈의문과 한양도성도 함께 복원할 예정이다. 돈의문 복원을 위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서울시민대학과 차고지, 서울시교육청 부지 일대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시교육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시는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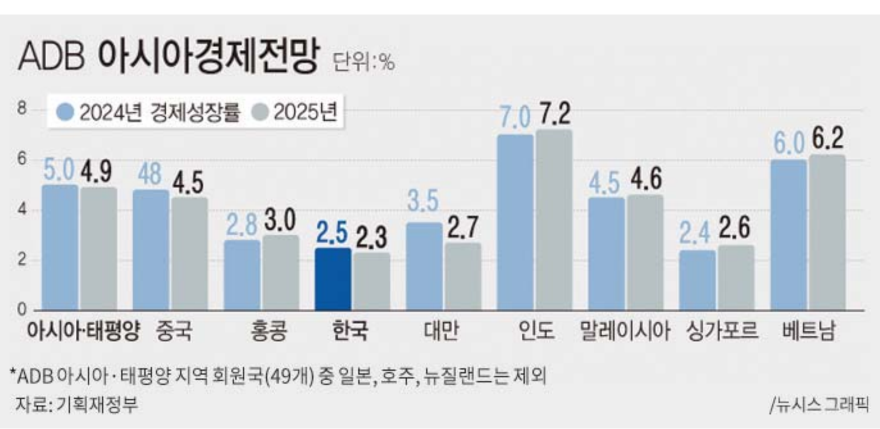
돈의문박물관마을도 재정비한다. 주변 도시 공간과 연결성을 강화하고, 일상 여가 문화 공간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오픈 스페이스를 확보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국가유산의 미래 지향적 활용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그간 엄숙하고 진지했던 경희궁 일대가 문화 여가가 있는 활력 공간으로 재탄생해 서울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올해 韓 경제성장률 2.2%→2.5% 상향

**ADB, 7월 아시아경제전망**
**반도체 등 수출 증가에 0.3%p 올려**
**올해 물가상승률 2.5%, 내년 2% 예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 예측치를 종전 대비 0.3%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반도체 수출 호조에 힘입어 2%대 중반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다.

ADB는 17일(현지시간) 발표한 '2024년 7월 아시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2024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5%로, 기존 2.2% 대비 0.3%포인트(p) 올렸다. ADB는 반도체 등 수출 증가세에 따라 지난 4월 발표(2.2%) 때보다 0.3%p 상향했다고 밝혔다.

ADB의 전망치는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은행의 전망치와 동일한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6%를 제시한 바 있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은 2.3%로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물가상승률 예측치는 올해 2.5%, 2025년 2.0%를 제시했다. 모두 지난 4월 전망 수준과 같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견조한 내수, 전자제품 등 수출 호조로 올해 5.0%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4월 전망치 보다 0.1%p 올려 잡은 것이다. 내년 성장률은 4.9%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아시아 지역 주요 하방요인으로는 미국 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지정학적 긴장 심화, 중국 부동산시장 등 내수침체 지속 등을 지목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물가상승률은 통화긴축 영향이 지속되고, 국제 식료품 가격 상승 둔화 등의 영향으로 점차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안정되면서 2024년 2.9%로 전망했다. 이는 4월 전망에 비해 0.3%p 하향 조정한 수치이다. 2025년 물가상승률은 3.0%로 지난 4월 전망 수준을 유지했다.

중국과 인도의 2024 GDP 성장률과 관련해, ADB는 각각 지난 4월의 4.8%, 7.0% 전망치와 같게 제시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망분리 규제 '유연성 부여' 단계적 개선"

**김주현 금융위원장**
**정보보호의 날 CEO초청 세미나**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은 17일 정보보호의날 기념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의 기술의존도가 증가하는 만큼 금융보안에 대한 위협도 커지고 있다"며 "금융시스템에서 보안사고는 금융안정성 뿐만 아니라 국가시스템 전체를 위협할 수 있게된 만큼 금융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금융보안의 패러다임을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보안의 형태로 전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간의 일률적 보안 규제로는 급변하는 보안위협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지난 10년간 해킹 등 외부위협을 차단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망분리 규제도 유연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단계적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망분리 규제는 외부의 사이버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을 분리하는 네트워크 보안 기법이다. 기관·기업 내부망과 일반 인터넷망을 단절해 확실한 보안조치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한번 보안의 벽을 넘으면 보안이 전혀되지 않아 기밀 안전 위협이 더 크다는 평가가 있었다. 중요도에 따라 보안을 달리하는 방안 등으로 유연성을 부여해 보안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검찰, 카카오 김범수에 구속영장 청구

**시세조종 위반 혐의… 22일 심사**

검찰이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사진)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카카오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지기 시작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가 17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세조종)위반 혐의로 카카오 창업자인 김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에 관한 기업지배권을 두고 하이브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총 2400억원을 동원해 SM엔터 주식을 장내 매집하며 총 553회에 걸쳐 고가에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 보유 보고의무(5%룰)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제기 중이다.

검찰은 지난 9일 김 위원장을 소환 해 오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약 20시간에 걸쳐 밤샘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같은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카카오 법인은 먼저 재판에 넘겨져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서현 기자 seoh@

# "中 경제 어려움 겪어 금값 상승 부추겨"

〉〉 1면 '금리인하·트럼프…'서 계속

전문가들은 금 가격의 상승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글로벌 지수 기반 거래소인 시티인덱스(City Index)의 파와드 라자크자다 애널리스트는 "경제지표 약세 및 인플레이션 압력 하강에 채권수익률은 계속 압박을 받고 있다"면서 "이는 수익률이 낮거나 제로인 자산의 매력을 높여, 금 가격 전망을 긍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귀금속 유통업체 유에스머니리저브(U.S. Money Reserve)의 에드먼드 모이 수석 전략가는 "최근 중국 경제가 어려움을 겪으며 중국 투자자들에게 대안이 별로 없지만, 금은 그 중 하나"라면서 "금 수요 증가와 금 공급 제한은 통상 금 가격 상승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연준이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면 금 가격이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면서도 "그러나 궁극적인 금리 인하, 지정학적 불안정,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 중앙은행의 금 수요 등 금 가격의 상승 요인들은 대부분 건재하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